다산포럼

'설국열차' 타고 써늘하게 인류를 돌아보기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올 여름은 더욱 뜨겁다. 원자력발전소 시험 성적서를 위조할 정도로 타락한 원전 마피아 덕에 '전력 보릿고개'를 앓고 있다. 어디 가나 뜨겁다. 2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도 남의 일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 여파로 기이한 물체가 발견되고, 후쿠시마 유령 도시화 괴담도 들린다.

폭염을 앓으며 사라진 국가 기밀문건 공방으로 난리 통인 와중에 시원함을 넘어 써늘한 재난영화 '설국열차'가 도착했다. 이 영화는 '괴물'로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봉준호 감독이 할리우드 배우들을 동원해 400억 원대를 넘어서는 거대 제작비로 만든 블록버스터이다. 규모의 경제학에 빠진 언론에선 흥행 수치 중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수치를 넘어 인류와 지구생태계 문제를 함께 돌린 예술가들의 고뇌와 열정이 영화의 모태이다. 시나리오 작가와 만화가들이 유명을 달리하며 30여 년에 걸쳐 완성한 프랑스 만화 '설국열차'는 봉준호를 매혹시켰고, 올 여름 의미심장한 피서를 즐겨보라고 달려온 것만 같다.

"결코 멈추지 않는 열차가 영원한 겨울을 광활한 백색 세상을 지구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가로지른다." 말 풍선에 이런 문구를 달고 빙하기를 폭주하는 열차가 등장한다. "바로 1001칸의 설국열차이다." 이렇게 설정된 만화는 칸 사이 이동이 불가능한 열차 속의 처참한 풍경을 재현해낸다. 상상력을 동원한 만화지만 현실을 깨우는 묘미가 숨어있다.

"만화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장난질이 아니다."라고 말한 오노레 도미에는 억압적 현실을 고발하는 통풍구 같은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 '삼등열차'는 삶에 찌든 몰골로 웅크린 채 불편한 빈자들의 초상을 보여준다.

그는 이어서 '일등열차'도 그렸는데, 정장차림의 승객들이 장갑을 낀 채 서로 시선을 피하는 고독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탐욕스런 루이 필립을 비롯한 정치 풍자화로 투옥까지 당한 그는 비탄스런 일상을 희화화한 거장이다. 열차칸 그림은 1860년대 차량 사이 통로가 열쇠로 잠기는 차별에 대한 비판적 고발이기도 하다.

영화를 보노라니 만화와 열차칸 그림들이 함께 밀려온다. '설국열차'는 절대 권력에 억압당한 지리멸렬한 열차풍경을 SF 판타지로 풀어나간다.

지구 온난화 해결책으로 79개국 정상들이 결의하여 살포한 CW-7은 빙하기를 가져온다. 얼어붙은 지구를 일 년에 한 바퀴 도는 설국열차만이 마지막 인류의 생존공간이다. 17년간 열차에 갇혀 사는 생존자들은 꼬리칸 빈자들과 앞칸 부자들로 나누어진다.

단백질 양갱으로 연명하는 꼬리칸 사람들은 앞칸의 필요에 따라 차출된다. 윌포드는 성스러운 엔진을 개발하고 돌리는 막강한 지도자이다. 생존 자체가 고역인 꼬리칸 승객들은 반란을 꾀한다. 단백질 양갱 속에 묻혀 커티스에게 전달되는 붉은 쪽지는 미지의 안내자이다.

커티스 일행은 보안설계자 남궁민수를 감옥칸에서 구출해 문을 열어젖히며 윌포드 제거를 위해 진군한다. 그들은 엄청난 살상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균형이 중요하다."라며 호통을 치던 메이슨 총리를 인질로 잡는 성과도 거둔다.

우여곡절 끝에 커티스는 엔진실에서 윌포드를 만난다. 반란은 성공적인 혁명이 될까? 윌포드를 제거하면 살만한 열차 세상이 이루어질까? 특수효과로 무장한 SF판타지 재미가 인류 공존에 걸린 본질적 질문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궁금증은 빙하기의 마약이지 인화물질인 크레올처럼 폭발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SF판타지의 종말론적 상상력이 현실적 고통을 먹고 산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팁 하나='설국열차'의 단백질 양갱 재료가 '바퀴벌레'란 점에 주목하면 더욱 재미있다. 봉준호 감독의 에피소드 구성 단편영화 '지리멸렬'(1994)에서 '바퀴벌레'란 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 단편영화는 20여 년간 순행 질주하는 봉 감독의 예정표처럼 보이기도 한다.

양동옥의 S 스토리

성적 욕망의 표현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매력적인 이성이 다가와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당신을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이상형입니다."라고 얘기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한다고 상상해 보자. "오늘 밤 나랑 데이트하실래요?", "오늘 제집에 놀러 오실래요?", "오늘 저와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실래요?"

이 뜬금없는 제안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도대체 나를 뭐로 보고 이러는 거야, 모욕당한 심정일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매력적인가, 우쭐한 기분일까.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매력적이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이성이 다가와 그러한 제안을 해올 때 흔쾌히 좋다고 응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사회심리학의 고전 중 하나로 꼽히는 한 연구는 하룻밤 정사와 같은 찰나적 성욕의 남녀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매력적인 이성이 다가와 데이트를 요청할 때, 남성의 50%와 여성의 56%가 승낙했다. 매력적인 이성이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때, 남성의 69%가 여성의 6%가 승낙했다.

매력적인 이성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남성의 75%가 승낙했지만, 여성은 모두 거절했다. 여성들은 맘에 드는 이성과 데이트할 의향이 높은 반면, 남성들은 함께 자고 싶은 욕망이 높았다. 이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해 2000년대까지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되었는데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도덕적 잣대를 과감히 던져 버리고, 만약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몇 명의 성적 상대자를 원하는가?" 필자는 사람들의 성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 700여 명의 성인에게 '가까운 미래인 다음달에서 먼 미래인 평생에 이르는 여러 다양한 기간'에 그들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성적 상대자 수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놀라움과 실소를 금치 못한 것은 남성 일부분의 이야기지만 꽤 많은 남성이 성적 상대자 수에 '무한대'로 답하거나 '천 단위나 만 단위의 수'를 거침없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은 대다수 성적 상대자 수를 '한 자리 수'로 제한했으며 몇몇이 쓴 '십 단위 수'가 최고치였다.

다양한 기간 모두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성적 상대자를 원했다. 예로, 앞으로 6개월 동안 남성들은 4명, 여성들은 0.7명을, 앞으로 2년 동안 남성들은 7명, 여성들은 2명의 성적 상대자를 희망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남성들은 12.8명, 여성들은 2.4명을, 남은 평생 남성들은 18.7명, 여성들은 3.3명의 성적 상대자를 바랐다.

이 연구는 평생 남성들이 평균 18명의 성적 상대자를 바라지만, 여성들은 겨우 4명에서 5명 사이였다는 서구 연구와 유사했다. 여성은 대체로 소수의 제한된 이성과 장기적이고 친밀한 성적 관계를 추구하려 성욕을 억제하는 경향을, 남성은 대체로 다수의 이성과 찰나적이고 유희적인 성적 관계를 추구하려 성욕을 욕심껏 드러내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지면상 많은 연구를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성욕이 그 표현 방식에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담이지만, 최근 서울시 간부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강사가 "불법행위인 성희롱은 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음에도 왜 계속 발생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간부가 "본능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남녀의 성욕 차이를 생물학적 본능으로 생각하고 남성의 높은 성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을 관장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열 배 이상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기 때문에 성욕이나 찰나적 성관계에 관한 욕구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남성은 평생 일 그램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데, 비유하자면 차 한 숟가락의 호르몬양에 휘둘리고 있는 꼴이 된다.

진화심리학자들은 부모투자 이론으로 남녀의 성욕 차이를 설명한다. 종족보존을 위한 노력의 차이가 곧 성욕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임신과 양육에 많은 에너지를 종족보존에 투자해야 하므로 성적 상대자를 제한적으로 선택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종족보존에 투자하는 남성들은 여러 이성을 찾아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성욕을 가지고 있지만, 성욕이나 성행동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성적 사회화 과정 동안 그것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도록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매체에서 학습, 강화시켰다는 설명은 어떠한가. 어떤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건 간에, 무분별한 찰나적 성관계에 관한 욕구를 쫓는 사람들은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친밀감의 교류를 배우지 못한 채 육체적 쾌락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

기고

환경사랑, 친환경 생태휴가로 실천하자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997년 미국의 요트 항해사 찰스 무어는 하와이 인근 북태평양 환류해역을 항해하던 중 지질학상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던 놀라운 섬을 보게 된다. 바로 '플라스틱 아이랜드'이다. 한반도 면적의 여섯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 이 쓰레기 섬은 오직 해류와 바람에 휩쓸려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섬이 발견된 이후 일본과 하와이 사이에 남한 크기의 열 배에 달하는 또 다른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국적도 지도상의 좌표도 없이 흘러다니는 쓰레기 섬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페트병, 비닐봉지, 일회용품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이후에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플라스틱 덩어리는 파도에 부딪히고, 인근 바위섬에 의해 깨지고 바스러진다. 이것을 먹이로 착각한 바닷새와 물고기는 뱃속에 폐기물이 쌓이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용기 속에 들어 있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은 해양의 수질오염을 가져온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마다 휴가철이면 해수욕장 등 피서지의 쓰레기 관리와 오폐수 처리 등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환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환경복지 실현의 의미와 함께 모든 국민이 친환경 여행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사이다. 그런데 필자가 해수욕장을 점검할 때마다 모래사장이나 주변 야영지 등에 버려진 유리병 조각이나 알루미늄 캔 등 쓰레기가 상당히 버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 되었지만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있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의 상표가 붙어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이다. 그 곳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해변을 오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버린 것은 일본이나 태평양 주변의 다른 나라 해변을 더럽힐 것이다. 또 하나의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만들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지역 남도는 뛰어난 경관과 우수한 생태자원의 보고이다. 빼어난 산과 넓은 평야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와 섬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휴가철이 되면 서울이나 경상도 등 다른 지역의 지인들에게 이곳에 와서 휴가를 즐기라고 항상 권하고 있다. 세계5대 습지로 유명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 흑산도·홍도·영산도 등 아름다운 섬이 촘촘히 박혀있는 다도해, 금오도 비렁길, 보성 녹차 밭, 지리산 둘레길, 모든 곳이 다른 곳에서는 즐기기 어려운 명품 휴양지이다. 혹시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찾아가도록 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신선하고 푸짐한 인심을 담은 남도의 한정식을 함께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남도의 자연을 보전하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자부심을 갖고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환경 여행을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자연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행객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금년 휴가는 친환경 생태여행을 직접 실천하는 보람된 시간으로 만들어가자. 친환경 생태여행의 핵심은 저탄소, 자연환경 보호, 쓰레기 줄이기에 있다.

우선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가전제품 코드를 뽑아 가정의 대기전력을 줄이자. 가까운 곳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고 장거리 여행은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목적지 경로를 미리 알아두고 운전 중에도 급출발, 급가속 등을 삼가며 정속 운행하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자. 계곡에서는 취사나 설거지,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고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자. 쓰레기는 내가 만든 것이든 남이 버린 것이든 구분하지 말고 되가져오자.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먹고 마시는 피서를 즐기기 위해 목적지로 질주하지 말고 환경을 돌아보는 착한여행을 떠나보자. 플라스틱 아일랜드는 인간이 버린 양심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극임을 잊지 말고 환경을 배려하고 나부터 실천하자. 자연이 아름다울 때 여행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말이 생각난다. "여행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정부, 광주U대회·F1대회 지원 나서라

2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U대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 광주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대기업 스폰서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더욱이 정부지원금 삭감 움직임마저 있어 이러다간 대회 성공 개최에 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문광부는 최근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파문 이후 광주U대회에 광주시가 내놓아야 할 지방비 38억 원을 미납한 것을 꼬투리 잡아 U대회 운영비 지원액을 삭감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흑자대회의 키를 쥐고 있는 대기업 스폰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올 1월 SK텔레콤, SK C&C와 566억 원의 후원 협약을 맺었으나 불황 여파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기에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스폰서 협약을 꺼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5대 메이저 대회를 제외한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전남도 또한 내년 F1대회 운영비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도는 204억 원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예산안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살려낸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냉랭한 분위기로 봐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정부 방침대로 흘러 간다면 두 대회 모두 차질은 불가피하다. 광주시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후원 유치활동에 나서고, 전남도가 국회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나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여의치가 않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식이든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말한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첫 단추는 U대회와 F1 지원에서 비롯돼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영산강 녹조현상 4대강사업 때문 아닌가

낙동강에 이어 영산강에서도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나주 느러지전망대에서부터 무안 몽탄대교까지 7㎞에 녹조현상이 심하다고 한다. 중류에 비해 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 구간이 많아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가 지난 3일 영산강 일대를 취재한 결과, 나주~무안 간 외에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죽산보와 승촌보 일원에서도 녹조류가 덮여 있고, 점차 확산 추세에 있음을 확인했다. 인근 주민들은 "갈수록 악취가 더해지고, 잉어와 붕어 등 죽은 물고기가 떠올라 낚시도 못한다"며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녹조현상의 심화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물을 막아 흐름을 막고 있는데다 고인 물에 번식하던 조류가 하류로 내려가 정체수역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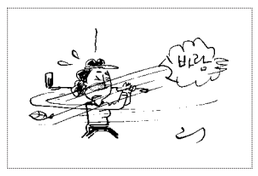
게다가 영산강은 폭염·마른 장마 등 주변환경이 낙동강과 비슷함에도 녹조 발생 여건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낙동강보다 훨씬 심한 녹조가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영산강은 오래전부터 오염된 생활 및 농업용수가 합류하면서 3~4급수로 전락한 상황에 녹조마저 번져 강으로서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이 농업용수만 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썩은 강물로 생산한 작물을 과연 먹을 수 있겠는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시공·보강·보수는 물론 수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성한 부분이 없을 만큼 부실투성이다.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공사 부실과 수질, 환경문제 등 총체적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녹조와 수질 악화 등 환경적 피해를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無等鼓

바람의 스포츠



지난해 8월 2일 열린 런던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

한국 여자양궁팀 에이스 기보배(광주시청)는 아이다 로만(멕시코)과 5세트까지 접전을 벌이며, 세트 점수 5-5로 동점을 이뤘다. 결국 이날 승부는 단 한 발의 화살로 승패를 가르는 연장전인 '슛-오프'(shoot-off)에서 결정됐다.

먼저 쏜 기보배의 점수는 8점. 뒤이어 로만도 8점을 쐈다. 하지만 기보배의 화살이 과녁 정중앙에 더 가까워 극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경기는 초속 3.9m의 바람 속에서 진행됐다.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여자양궁 단체전과 개인전의 최대 관건은 '바람'이었다. 태극낭자 궁사들은 풍속을 감안해 과녁을 어긋나게 조준해서 쏘는 오조준법과 짧은 시간 내에 조준하고 쏘는 빠른 슈팅 등 비바람을 대비한 비법으로 우승을 일궈냈다.

육상 역시 주법(走法)뿐만 아니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리는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신호탄에 반응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기 저항이 적은 해발 1000m 높이의 경기장에서, 결승선 방향으로 초속 2m의 순풍이 분다면 볼트의 100m 기록이 9.36초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메이저 골프대회 4연승과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노리던 박인비(25·KB금융그룹)의 도전이 바람 앞에 막혔다.

공동 42위(6오버파 294타)로 대회를 마친 박인비는 "우승하려면 날씨도 내 편이 돼야 하는데 이번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3라운드는 최대 초속 16.7m에 이르는 강풍 탓에 그린에 놓인 볼이 저절로 굴러갈 정도여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스포츠든지 기온과 바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변화무쌍한 자연과의 싸움이기도 한 스포츠의 기록 경쟁은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하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AX	222-8005〉
정치부	2200-612	체육부	2200-697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